

# 새싹포럼지 9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포럼지 2013년 09월호

##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 김현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 유아교육과의 새로운 교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이 분이 오셔서 저희과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엄마와 같은 포근하고 인자한 미소로 인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이 분이 누구 신지 여러분 모두 짐작하셨죠?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새로운 교수님, 김현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3학년 수업만 진행하고 계시기에 1~2학년 학생들은 교수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기에 1, 2학년에게 질문을 받아 교수님을 찾아뵈어 인터뷰하였습니다. 모두 김현지 교수님에 대해 알아보까요?

#### Q. 학생들에게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지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처음 만나기 전에, 긴장과 부푼 기대에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첫 수업 때, 여러분이 대담도 착실히 잘 해주시고,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저의 말에 경청해주었기 때문에 그 걱정들을 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이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즐거운 수업같이 해나가 봐요."

#### Q. 교수님께서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틈이 나면 수영을 하러 가며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습니다."

####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무엇인가요?

"교사는 전문인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무조건적 사랑과는 다른 유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유능하고 전문인이 지녀야 할 자질과 태도를 지닌 사람이 바람직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 Q. 교수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유아가 있나요?

"저는 두 명의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먼저 제가 실습을 나갔을 때에 저를 골탕먹이면서 놀리던 남자아이와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저를 감싸주었던 아이가 생각이 나요. 물론 둘 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김현지 교수님과 인터뷰하고 있는 2학년 김유리, 박지원학생의 모습이다.

#### Q.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시고 싶은 교육 자료가 있으신가요?

"모든 교육 자료가 그 가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에 알맞은 자료를 제가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제 연구실은 열려있으니 필요하다면 찾아오세요."

####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줄 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진흥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더불어 여러분이 우송대학교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우리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가 같이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학과 분위기가 열정이 넘치고 화목하므로 이러한 저의 바람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소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을 수 있으나, 웃으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밝은 미소처럼 교수님을 뵈면 밝은 미소로 교수님께 먼저 인사하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됩시다.

또한, 교수님의 말씀처럼 유아교육진흥에 도움이 되는 교사가 되도록 더 욱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학생이 됩시다.

김현지 교수님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생각을 행동으로!



2학년 이예은 학생이 다른 학과 학생과 슈퍼스타 W에 참가하기 위해 가사를 보며 연습하는 모습이다.

난 어릴 때부터 아주 소극적이었다. 친한 친구들 외에는 솔직하게 감정표현도 잘못하고 학교 수업시간에도 내 주장을 못 펼칠 때가 많았다. 어릴 때부터 여러 노래를 듣고 자라서인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서 남들 앞

에서 노래하지 않았다. 내가 부족하고 남들이 나의 부족함을 알고 손가락질을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만 보기에 밝아 보이지만 부정적인 생각만 했던 것 같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와 점점 커가면서 나의 이런 성격이 나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머물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용기 있게 많은 일을 해보자는 다짐을 했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마음만큼 행동으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번에 슈퍼스타 W에 참가하게 된 계기 역시 기회가 생기면 해보는 것이 더 좋은 경험이자 추억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선이 끝나고 난 뒤 많은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떨리고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전보다 더 용기를 갖게 되었다.

### 보육실습 에피소드

각자 고향에 돌아가 보육실습을 한 학생들도 있었고, 대전에서 자취하며 보육실습을 한 학생들도 있었다. 보육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은 만나자마자 할 말이 정말 많았는지 기회만 생기면 자신의 실습 경험을 털어놓기 바빴다. 그러한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첫 수업은 보육실습 경험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제공해주신 교수님도 계셨다. 약 한 달간의 실습은 학생들에게 많은 고민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고 교사로서 한 발 더 내딛는 기회가 되었다. 3명의 학생들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짧게 담아보았다.

Q.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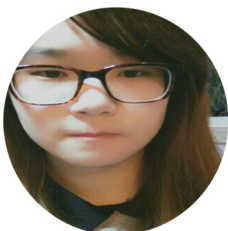


3학년 류자경 학생(대전 초원 어린이집, 만 5세반 실습생)

“처음 실습하러 간 날 쑥스럽고 우리 눈치 보느라 잘 놀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판에 얼굴을 넣고 후딱 먹고 도망가던 유아가 있었는데 친해지려고 열심히 장난도 치고 말도 걸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편지와 그림까지 써주어 감동이었어요.”

3학년 임수현 학생(강원도 태백 중앙 어린이집, 만 5세반 실습생)

“아침부터 더운 여름날 유아들이 등원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너무 덥다~'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역할 영역에서 각각 부채를 들고 나를 둘러싸면서 부채질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제 안 덥죠?' 라고 했어요. 그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되고 즐겁게 해주는 실습생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학년 임윤선 학생(대전 대동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만 3,4세반 실습생)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아이들 현장견학을 가곤 했어요. 그런데 정말 견학 갈만한 곳이 많다는 것을 느낀 이유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늘 빠지는 날 없이 매주 갔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봐서 좋기도 했지만, 현장견학을 가면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까 힘들기도 했어요.”

## 우송유치원 소식

### 한밭 교육박물관



유아들이 전시물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9월의 교통기관, 우리나라라는 주제에 맞추어 9월 12일 우송유치원의 하얀구름반과 파란하늘반이 한밭교육박물관을 방문했다. 유아들은 박물관에서 다양한 전통놀이를 경험했다.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놀이에 유아들 모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여러 전



유아들이 전통놀이인 비석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물을 보며 전통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박물관을 다녀온 뒤 유아들이 아쉬워하여 유치원에서도 전통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으며 모형 지게와 같은 전시물도 전시해 두었다

### 추석맞이 송편 빚기



9월 17일 유치원의 모든 유아가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빚기를 경험했다. 3세 유아들은 콩 송편을 만들고,



4세와 5세 유아들은 녹두 송편을 만들었다. 이날 직접 만든 송편으로 간식을 먹었다.

### 민속의 날 행사



9월 26일 유치원에서 민속의 날 행사가 열렸다. 오전에는 다양한 전통놀이를 했다. 박물관에서 배우고 유치원에서 익힌 덕분에 유아들은 능숙하게 놀이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부모님을 초대하여 그동안 익힌 율동을 뽑



뽑았다. 3세는 '손 치기 하세', '어깨동무 시 동무', 4세는 '아리랑', 5세는 '강강술래'에 맞춰 율동을 했다.

# 지혜나눔 프로젝트

## 배냇 미소

배냇 미소는 많은 부모님이 잘못 알고 있는 영아들의 특징 중 하나이다.

‘배냇 미소’는 배냇저고리(갓난아이에게 입히는 저고리)를 입고 짓는 웃음을 줄여 만들어진 말이다. 영아들이 졸린 상태나 자다가 빙긋이 미소를 짓는데 이를 보고 부모님들은 “아기가 나보고 웃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의 시각적 자극에 의한 미소가

## 하체 근력 키우기

대부분 사람이 탄탄하고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운동을 시작하면 대개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몇 가지 운동만을 하게 되는데 푸쉬업, 윗몸일으키기, 덤벨 등 근력 운동의 대부분이 상체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하체 근력이 부족하다. 운동 할 때에는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체와 하체의 균형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자, 이제 다음의 간단한 동작들을 집에서 따라 하며 하체의 근력을 키워보자.



다리 펴고 들어 올리기로 허벅지 뒤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다리가 가늘어 보이게 해준다.

1. 똑바로 선 채로 양손에 덤벨을 들고 팔을 앞으로 쭉 편다.
2. 다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덤벨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

3. 등 아랫부분에 힘을 주면서 상체를 일으킨다.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무릎을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12회 반복한다.

아닌 뱃속에서부터 해오던 얼굴 근육 움직임의 일종으로 신경 생리학적 미소이다. 영아들이 기쁨을 표현하는 사회적 웃음은 2~3개월경에 나타난다.

힘든 일이 많은 요즘, 현대인들의 얼굴에는 미소라는 존재를 찾기 어렵다. 아기들처럼 배냇 미소를 지어 봅시다.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될 것입니다.



피스톨 스쿼트로 허벅지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것과 동시에 모양을 아름답게 잡아준다.

1. 왼발로 중심을 잡고 선 뒤 오른쪽 발을 몸 앞으로 쭉 펴서 내민다. 양손은 깍지 낀 채로 팔을 앞으로 곧게 펴서 균형을 잡는다.
2. 왼쪽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면서 웅크려 앉는다.
3. 왼쪽 발꿈치에 힘을 주며 일어나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발을 바꿔가며 12회 반복한다.



스quat 스리스트로 허벅지 앞부분의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워주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1. 옆드려서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한 다음 왼쪽 무릎을 팔 사이로 당긴다.
  2. 왼쪽 다리를 뒤로 쭉 펴면서 동시에 오른쪽 무릎을 팔 사이로 당긴다. 이 동작을 12회 반복한다.
- (출처: 네이버 '섹시한 다리를 만드는 10분 운동법')

##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진희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조예슬

김유리 김예솔 김지윤

박지원 박명옥 손혜원

